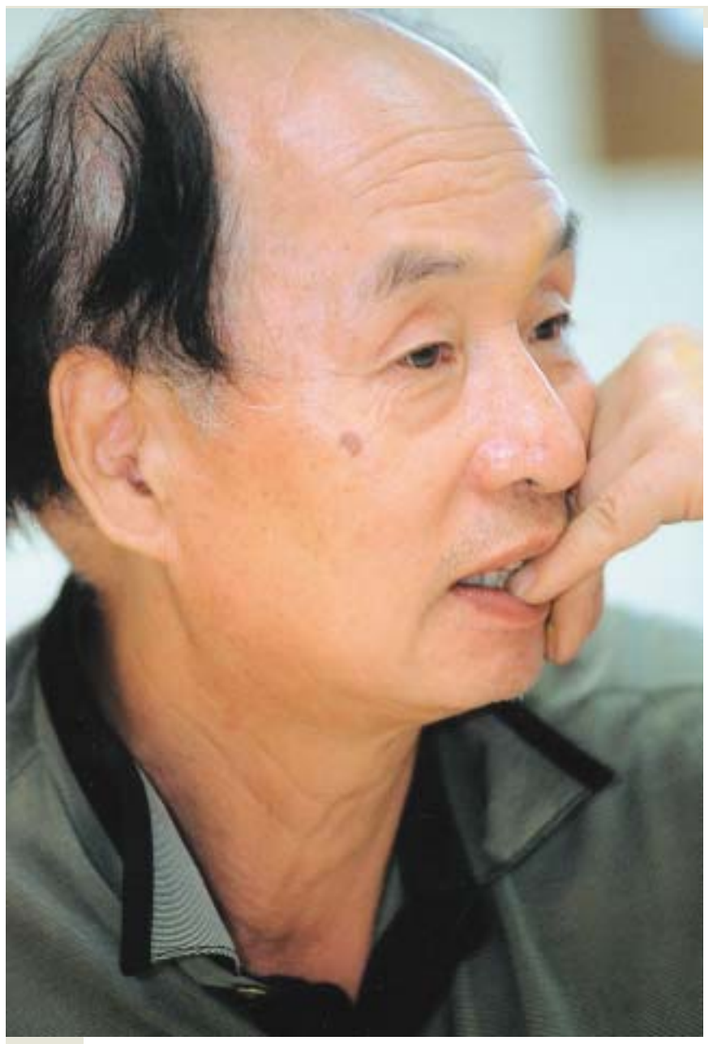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7>

제28호 단청장 김 종 욱씨

사진 왼쪽부터 쌍고리줏대금, 천장 반자초의 연화문, 고리줏대솟을금문, 용문양

청 적 백 흑 황

한국적 색채, 五色 문화잇기

丹靑…선사시대 토기 채색서 시작

전통 목조건축물 개성·기품 돋보여

현란한 오방색에 고건축물의 기품이 되살아난다.

단청(丹靑)이란 '목조건물에 여러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넣어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선사시대 토기를 채색하는데서부터 시작해 사람의 몸에 색칠을 하거나 문신을 한 것에서 단청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도시 근교의 사찰이나 유명한 국내 사찰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의 서까래와 기둥을 비롯해 건물 전체가 다양한 문양과 색깔로 단청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청은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려는 것과 함께 도료를 통해 건물의 부식과 습기침투를 방지하는 등 목재를 오래도록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갖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중국과 일본의 건축물과 달리 단출한 느낌의 우리 건축물에 개성과 미(美)를 부여한 것이 바로 단청이다.

단청은 원색을 사용하면서도 원색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기하학적 무늬로 꾸며져 정교하면서도 정적인 아름다움과 원숙한 깊이가 조화를 이룬다.

오랜 세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청장(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김종욱씨(67·수원시 장안구 화서동)가 우리색의 문화를 잇고 있다.

인터뷰 당일 김씨는 안양 용화사에서 주문받은 길이 5m, 폭3m인 대규모 '영산회상 후불탱화' 작업에 한창이었다.

초채(初彩)를 막 끝낸 이 작품은 창호지 8장을 붙이고 그 위에 면아사를 덧붙였다. 1달 반이 걸렸다는 이 작품은 인물의 옷자락마다 음역을 입히고 색을 덧칠하는 중이었다.

"꼬박 4달은 붓을 잡아야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대작이죠"

김씨는 13살때 단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고 혜각스님에게 입문, 단청의 길에 들어섰다. 김씨는 스승인 혜각스님을 따라다니며 단청의 기본 5색(청 적 백 흑 황)을 혼합하여 수 많은 빛깔을 내는 법을 비롯해 단청문양 그리는 법, 탱화나 벽화에 들어가는 불상과 인물 그리는 법 등 단청의 모든 것을 직접 전수받았다.

50여년 동안 오로지 단청작업만을 해온 김씨는 최근 천태종 구인사(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괘불탱화를 제작한데 이어 수원 화성행궁의 신풍루, 경주 안압지, 분황사, 칠백의총, 불국사, 석굴암, 통도사,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과 창경궁, 수원 화성의 방화수류정,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국의 유명 사찰, 궁궐 곳곳에 김씨의 손길이 닿았다.

특히 지난 1988년에는 국보 1호인 남대문 보수공사에 참여했으며, 경복궁 근정전 복원사업에도 실력을 뽐냈다.

중요무형문화재 故 혜각스님에게 입문

빛깔내기·탱화·벽화 등 직접 전수받아

남대문·경복궁·불국사·석굴암 등

사찰벽화 800점·탱화 100여점 작업

그 동안 김씨는 사찰벽화 800여점, 탱화는 100여점에 이르며, 사찰 서까래와 기둥에 한 단청은 무궁무진하다.

단청은 궁궐과 왕족이 거주하는 집에만 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미 삼국시대 진골 외의 사람이 집을 오채(五彩)로 칠하는 것을 금한다는 금지령이 있었고,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 궁궐에 단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단청을 하기 전에는 단청할 자리를 잘 닦아낸 다음 아교물을 타서 가칠하기를 다섯 번 거듭한 후 무늬와 형상을 그리고 색칠한다.

단청은 그 무늬가 새겨지는 부위의 성격과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서까래 끝에 하는 단청을 연동초, 부연 끝에 하는 것은 부연초라고 부르며, 화려함을 자랑하는 공포와 서까래의 단청, 기하학적 무늬와 당초 무늬, 천지자연물 등이 주요 문양으로 등장한다.

또한 천상을 나타내는 곳은 천장문양이 그려져야 하며, 그 아래 하늘주위인 평방, 창방, 도리 등의 천장을 받치는 부재에는 갖가지 상서로운 오색구름, 무지개, 연꽃 장식을 한다. 하늘을 받치는 기둥에는 오색구름이나 성의 처럼 너울이 드리워 지며, 기둥아래에는 현세의 인간들의 권위와 존엄성을 표현한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단조롭게 표현한다.

김씨는 단청은 물론 전국에서 손꼽는 탱화 전문 무형문화재다.

김씨는 "건물에 단청을 그리는 사람은 많아도 단청의 최고 경지인 탱화와 벽화를 그리는 사람은 적다"며 불교미술의 독보적인 기술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을 이어온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진정한 한국의 색채미는 '탱화'라고 자신하는 김씨의 남다른 탱화사랑은 깊은 내면의 정신과 생활속에 실천한 장인정신에서 비롯한다.

"잡념이 생기면 집중할 수가 없지요. 적어도 3~4개월 걸리는 대작을 할때는 바깥 출입도 삼가며 작업에 몰두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작품할 때는 잡인의 출입조차 막는다는 김씨의 정성이 여러번 거듭되는 붓칠에 고스란히 살아나고 있었다.

"탱화는 거룩한 작업이라 그 누구도 들여다 봐서는 안돼요. 옛부터 불사(佛事)는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였을까,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첫번째 취재원으로 생각했지만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며 고사했을 때는 잠시 서운했던 기자의 마음이 작업에 몰입하는 장인의 면모에 스르르 녹았다.

현재 김씨는 단청의 최고수로 불리는 서울의 만봉스님, 부산의 석정 스님과 함께 탱화의 큰 맥을 잇고 있다.

내년 개인전 고려·조선불화 준비중

"다음 生에도 화원으로 태어나고파"

김씨는 작업을 하기 전 절의 주지 스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색깔만 칠하면 그냥 그리는 것에 불과하지요. 오래된 절일수록 절의 역사와 그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야 제대로 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궁궐 등의 보수작업에 참여할 때면 문화재 전문위원의 조언이 곁들여져야 보다 체계를 갖춰 작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씨의 아들이 10년째 단청을 배우고 있으며, 이번 작업에 김성희씨가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50년 넘게 그림을 그렸지만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남대문에 입힌 단청을 옮겨다 놓을 수도 없는 것.

"내년쯤에는 개인전을 위해 고려불화나 조선불화를 틈틈이 그리고 있어요"

김씨의 집에는 기품이 서린 홍색과 금색 또는 청색계통의 색깔을 주조색으로 섬세하며 유려한 고려불화와 선명하며 단순명쾌한 조선불화 몇 점이 표구돼 있었다.

김씨는 "전통미술은 얼굴이 실감나게 나오고 완성된 작품의 바닥이 깨끗해야 잘된 작품"인데 "매번 작품을 완성하고 보면 잘된 작품이 없다"며 겸손해 했다.

매 작품마다 경건함을 담고 있는 김씨의 이런 생각은 속세의 기술로 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는 실례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닐까.

큰 작품을 하고 나면 곧 잘 몸살을 앓기도 한다는 김씨에게 취재 도중 '그동안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질문을 몇차례 한 결과 김씨의 말문이 트였다.

"다음 생에도 화원으로 환생하고 싶어요"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강종민기자 ppkjm@kgib.co.kr